

나의 독서 이력을 한눈에! 독서 기록, 앱으로 스마트하게 해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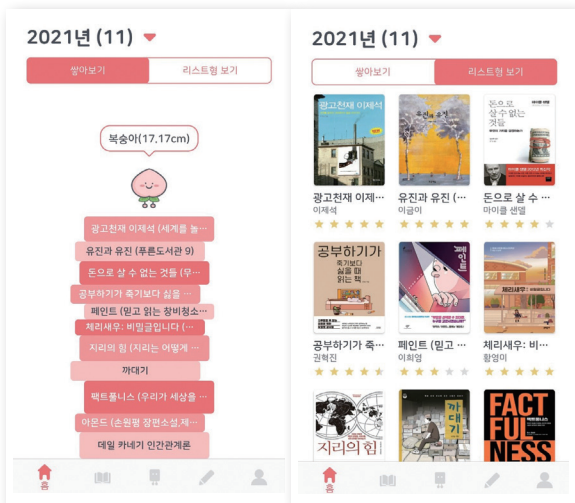
나와 맞는 앱부터 찾아

독서 기록 앱은 사실 어떤 것이 좋고 나쁘다기보단 자신에게 맞는 앱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 개인의 성향과 취향, 독서 방법이나 목적에 따라 선호하는 앱이 달라지기 때문. 어떤 앱은 '기록'에 집중하는가 하면, 어떤 앱은 사람들과의 '교류'에 방점을 찍기도 한다. 책을 등록하는 방법의 편의성도 다르고, 메모하는 형태에도 차이가 있다. 앱마다 특장과 장단점이 다르므로 디자인, 기능, 편의성 등 자신만의 우선순위를 정해두면 선택에 대한 고민을 줄일 수 있다.

사용자가 많은 북적북적, 리더스, 산책, 북플립 네 가지 앱을 중심으로 살펴봤다. 이들은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리포터와 중2 자녀가 직접 체험해보고 자신에게 적합한 앱을 골라봤다. 이외에도 북모리, 북플, 북트리, 독서 다이어리 등 시중에 독서 기록 앱이 다양하게 출시돼 있으니 마음에 드는 것으로 테스트해보고 자신에게 잘 맞는 것을 고르면 된다. 사용 목적에 따라 두 가지 이상의 앱을 함께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북적북적	리더스	산책	북플립
운영 체제	iOS, 안드로이드	iOS, 안드로이드	iOS	iOS, 안드로이드
도서 등록 방법	검색, 직접 입력	검색	검색, 직접 입력, 바코드	검색, 직접 입력, 바코드
메모 형태	글	글, 사진, 밑줄	글, 사진, 밑줄	글, 사진
통계 제공	○	○	×	○

단순한 게 제일 좋은 중2 자녀's PICK! '북적북적'



읽은 책은 책담 형태 또는 리스트형으로 볼 수 있다.



“복잡한 건 딱 질색이라 단순하고 직관적인 '산책'과 '북적북적'이 마음에 들었는데요. '북적북적'이 캐릭터가 귀여워서 더 호감이 가요. 읽은 책을 입력하면 차곡차곡 쌓이는 게 뿌듯하기도 하고, 일정 높이가 되면 새로운 캐릭터가 오르는 재미도 쏠쏠하네요. 캐릭터 배경화면도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어 좋아요. 메모에는 텍스트만 입력할 수 있고, 통계 데이터도 월별 독서량만 제공하지만, 저한테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책장을 넘기며 마주한 감동과 여운. 손으로 기록하자니 귀찮고, 마음속에만 담아두기는 아쉬웠다면 독서 기록 앱을 이용해보면 어떨까. 내가 어떤 책을 얼마나 읽었는지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물론, 마음에 드는 구절에 밑줄을 그어 저장할 수도 있고, 같은 책을 읽은 다른 사람의 서평도 참고해 볼 수 있다. 읽은 책이 쌓일수록 느끼는 성취감과 독서에 대한 동기부여는 덤. 독서 기록 앱,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내게 맞는 앱으로 이 여름 책 속에 풍덩 빠져보자.

취재 송은경 리포터 eksong@naeil.com

독서 기록 앱별 특징



복적북적

귀엽뽀짝 캐릭터의 활약

아기자기한 디자인과 귀여운 캐릭터로 인기가 높다. 특히 읽은 책을 탐처럼 쌓아 보여주는 시각적인 효과는 독서에 대한 동기부여와 성취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책장의 높이에 따라 캐릭터를 획득할 수 있어 게임처럼 즐길 수 있다는 것도 장점. 다른 것 필요 없이 그저 읽었다는 기록 하나만 남기고자 하는 사람에게 추천한다.



산책

심플한 게 최고야

산책(내가 산 책들)은 단순하고 직관적이다. 읽은 책을 마치 서가에 전시해놓은 듯 책표지로 한눈에 보여주는 아날로그 디자인이 매력적. 책을 등록할 때도 검색뿐 아니라 바코드를 스캔하거나 직접 입력할 수 있어 편리하다. 다만 아이폰과 아이패드에서만 이용할 수 있고, 통계 기능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이 아쉽다.



리더스

혼자 하는 독서는 싫어

다른 사람, 소위 잇님(블로그 이웃을 칭하는 말)들과 교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갖춰진 앱이다. 인스타그램처럼 개인 계정을 팔로워할 수 있고, '피드' 섹션이 있어 다른 사람의 스크랩을 보고 '좋아요'를 누르거나 댓글을 남길 수도 있다. 무엇보다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북클럽이 신선하다. 돈을 미리 걸고 미션을 완수하면 환급받는 방식으로 90%의 완독률을 이끌어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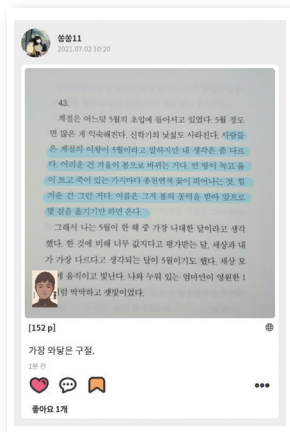


북클럽

이보다 더 분석적일 순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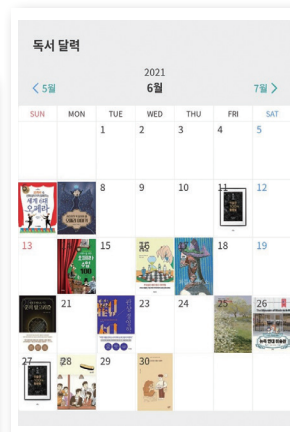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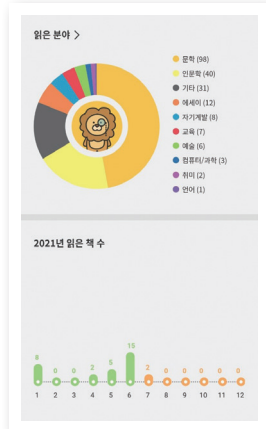
디테일의 끝판왕. 매우 자세하고 세분화된 기록과 통계를 제공한다. 자신이 등록한 책의 권수는 물론 읽은 책, 읽고 있는 책, 읽을 책으로 분류해준다. 차트나 달력으로 독서 현황을 파악할 수 있으며, 총 읽은 페이지 수, 내 서재의 저자 순위 등도 알 수 있다. 리더스 앱과 마찬가지로 팔로워 기능도 있다. 단, 다른 앱에 비해 구동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다.

'잇님'들의 생각이 궁금한 리포터's PICK! '리더스'



기억하고픈 페이지를 찍어 밑줄을 긋고 메모도 남길 수 있다.

내 서재에 가면 독서량과 독서 성향 등 나의 독서 기록과 분석 결과를 볼 수 있다.



한 달 동안 읽은 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독서 달력' 기능도 제공한다.

“ 일단 꼭 원했던 기능은 마음에 와 닿는 구절에 밑줄을 그을 수 있는 하이라이트 기능이었어요. 책을 읽다가 기억하고 싶은 문구를 만나면 리더스 앱을 켜서 사진을 찍고 형광펜으로 표시해 저장하면 되니 정말 편하더라고요. 같은 책을 읽은 다른 사람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는 점도 마음에 들었어요. 북클럽은 아직 참여해보지 못했지만 여럿이서 함께하면 읽기가 버거운 책도 도전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 ”